



○일 시 : 1987. 5. 22 (금) 07 : 30~09 : 00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협의사항)

1. 의보수가 연례인상대책 협의

'89년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정부 당국이 '88년도에 수가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나 병원계는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로 인하여 병원경영 악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입원료등 보험수가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저렴하므로 의협 및 간협등 관련단체와도 제휴하여 입원료 인상과 간호관리료를 신설토록 하는등 의보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보사부 실무진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시키기로 하다.

2. 협회비, 심사비 등 납부율 제고 대책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비등 부담금 납부율 제고에 전력토록 할 것이며 특히 수련병원에 대한 심사비는 금년부터 수련병원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와 함께 심사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케되어 있으므로 미납병원을 확인하여 심사전에 납부토록 강력히 재촉하기로 하다.

3. 정화포스터 제작 규격변경 검토

현재 회원병원에 격월제로 배부하고 있는 정화포스터의 제작규격을 병원규모별로 부착장소의 협소 및 포스타 게시효과등을 고려하여 규격변경을 재검토하기로 하다.

4. 총회 시상제도 신설(안) 검토

총회 시상제도 신설(안)에 대한 사무총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후, 동(안)

에 대해 토의한 결과 병원장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부상은 기념품대신 상금으로, 시상대상을 병원단위로 하는 문제와 타기관의 심사기준, 심사요령 및 재정문제 등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료를 입수한 후 재상정 검토키로 하다.

제 44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7. 6. 19 (금) 07 : 30~08 : 45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협의사항)

1. 진료용 재료 국산품 사용 대책 협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진료용 재료 품목중에서 수입품과 비교하여 사용목적, 규격, 효능 및 효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87. 6. 1 부터 의료보험에서도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산 재료는 가격면에서도 고가일 뿐 아니라 특히 사용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하여 진료의사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원병원으로 부터 부작용 실례를 수집하는 등 구체적 반증자료를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반영키로 하다.

2. 전주예수병원 노조 결성에 따른 대책

박이갑 총무이사 및 총무부장의 전주예수병원 노조 결성에 따른 현지 조사 출장결과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결과 현행법 상으로 노조결성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병원에서의 노조결성은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를 일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 결성을 자체해 줄 것을 노조측에 설득하는 방법 이상으로 강력한 제동을 할 수 없으며 노조결성 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타 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필요한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다.

3. 해외출장 결과보고

하호욱 사무총장이 '87. 5. 24~6. 7 (15일간) 간 코펜하겐(덴마크) 및 헬싱키(핀란드)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 초청 심포지엄 및 제25차 국제 병원연맹총회에 참석한 해외출장 결과보고는 제출된 서면 보고서로서 가름하기로 하다.

제 45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7. 6. 26 (금) 07:30~09:15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협의사항)

1. 진료재료대 협약가 대책협의

진료재료대 협약가 체결의 근본 취지로 보아 협약가는 일원화가 이상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외국에서와 같이 우리도 물품저장관리, 손폐울 및 인건비등 간접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통 거래폭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실무진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다.

2. 적정진료보장 적용 모형개발 추진

병원 표준화 심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하나로 병원이 아직까지 QA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 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원표준화 이사 주관하에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표준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회원병원에 널리 홍보 계몽기로 하다.

3. OECF 차관 병원지원 방안강구

병원 경영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구 OECF 차관 민간 병원들이엔화 상

승으로 차관 자금의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어 병원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본회가 본건 제안자인 논산 백제병원 이사장과 협의하에 차관 병원장 회의를 소집,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4. 의료 보험수가 연구 용역에 대한 대책 협의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이 긴축 운영으로 경영상태가 좋은 병원으로 편중될 경우, 연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병상당 건평, 의사, 간호원 등 의료인력이 최소한 중간 수준에 있으면서 적절한 진료를 제공 할 수 있는 병원이 선정되도록 반증자료를 제시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KPC를 설득시키는 문제를 회장단에 위임하여 추진키로 하다.

제 46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7. 7. 3 (금) 07:30~08:55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협의사항)

1. 재료대 협약가 체결

금년도 의료보험 재료대의 협약가는 특히 중소 병원에 적용상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예로 보아 세무 소명 자료 미첨부나 부실등의 이유로 삭감액 증가 및 진료비 지급 지연 등 병원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협약가 체결에 협약키로 하다.

2. AIDS검사 비용 파악 보고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적립금 개정 고시중 AIDS 검사 비용 1,920원을 신설 하였던 바,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 다음 병

원에서 받고 있는 AIDS 검사 비용 실태와 함께 차기 실행이사회에 보고
키로 하다.

3. 가정의 수련교과 과정(안) 검토

가정의 학회측으로부터 송부된 가정의 수련 교과 과정(안)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보사부가 동교과 과정을 확정하기 전에 본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재호 수련이사가 검토한 후 차기 실행이사회
에 상정하여 검토키로 하다.

4. 병원군별 심사 일정 신중검토

B군 병원이라도 500병상 이상 병원을 1일 2개 병원씩 심사한다는 것
은 실제로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심사대상 병원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명년도 심사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로 한
하다.

5. 회관 이용률 제고대책

본회 회관의 이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 연수 교육을 활성화
하여 회의실을 활용케 함과 동시에 서울시 병원회를 비롯 유관단체에 임
대를 줄 수 있도록 사무국 점유면적을 좁혀 할애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된 임대 및 관리료 등을 포함한 회관 관리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
키로 하다.

제 47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7. 7. 10 (금) 07 : 30 ~ 09 : 05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협의사항)

1.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삭감 및 행정처분등에 대한 대책 강구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 일원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병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해도 보험자 단체의 일방적인 심사로 인해 부당 삭감을 당할 수 밖에 없으며 부당 청구의 벌과금 부과 대상이 안될 병원이 없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진료비 심사 기구의 독립일원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회원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부당 삭감당하고 있는 주요 삭감 사례를 수집함과 동시에 심히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 후, 보사부와 보험자 단체등에 공문으로 강력히 시정을 촉구 하고, 본회 의료보험 연구위원회를 월 1 회씩 소집하여 활성화하며 의료보험 관련방침 및 진료비심사 기준등 필요한 정보를 병원회보등을 통해 회원병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한다.

2. 협회비 납부율 제고 대책

협회비 납부율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수련 심사비 납부 방법과 같이 수련 병원 지정 신청서 접수시 협회비도 함께 납부토록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시기상조이므로 회원 병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회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협회비 납부 실적이 우수한 회원은 병원회보에 병원 명단을 게재 홍보하는 한편 병원 사정이 어려워 수년간 회비를 납부치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납부액 감액조치 또는 분납하는 방법으로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협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하다.

3. 병원회보 광고 수입 제고

병원회보 광고 수입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회보가 창간된지도 이제 1년이상이 경과 된 만큼 광고부 요원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광고주 개발과 광고 수입에 더욱 분발토록하고 특히 광고 게재에 따른 미수금 방지에 각별히 전력키로 하다.

4. 가정의 학회 연차별 교과과정(안) 상정

가정의 학회가 제출한 가정의 학과 연차별 교과 과정(안)에 대해 김재호 수련이사의 검토 의견과 사무총장의 안전내용 설명이 있는 다음, 동(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실행이사들이 검토한 후 차기 실행이사회에서 재정상 토의키로 하다.

■編輯委員：韓斗鎭·朴利甲·金世民·黃泰植·林隆義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46 號)

'87년 7·8월호(月刊)

등록일자 :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제 6 라 1691호

인쇄일 : 1987년 7월 31일

발행일 : 1987년 8월 1일

發行人 : 白樂院

編輯人 : 黃泰植

印刷人 : 朴善奎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1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1 전화 : 718-7532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6, No. 7.8

Jul. Aug 1987

Publisher :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Mapo Hyun Dai Bldg.)

35-1, Mapo-dong, Mapo-gu,

Seoul 121, Korea TEL. 718-7532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본회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